

호남대, 한국어·문화 세계 전파 앞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러시아 등 6개국 대상 강좌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한국어·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지원하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을 통해서다.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은 급증하는 한국어 강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국내-해외대학 연계 및 해외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어 강좌를 실시간 또는 VOD 방식으로 해외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 증가에 비해 해외의 한국어 강좌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이 사업에 선정된 호남대학교(책임교수 한국어학과 운영)는 2024년까지 4년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태국,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의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10개 대학에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 강좌를 실시간 또는 VOD 방식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현재 KF 글로벌 e-스쿨에서는 이들 해외 대학에 기초 한국어, 실용 한국어 문법활용, 한국문화와 한국어, 한국어 어휘 활용, 한국어와 사회문화의 이해, 한국어로 배우는 한국문화 등 9개 강좌(과목당 3~6학점)를 실시간 또는 VOD로 송출하고 있다.

호남대학교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



호남대학교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각국 참가자들. (호남대 제공)

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어학과는 우수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으로 최고의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을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전공 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다양한 한국어 강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운영 책임교수는 "KF 글로벌 e-스쿨 강좌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생활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에

서부터 한국에서 취업하기, 우리 고유의 판소리 등을 접목한 다양한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대학교는 중국 항저우 세종학당(2012년)과 키르기스스탄 오시1 세종학당(2019년) 운영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교양교육 혁신 방향 연구…교육의 질 제고”

광주여대, ‘지역대학 연합 교양교육 학술 포럼’ 성황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교양기초교육원은 ‘2022 지역대학 연합 교양교육 학술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광주여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교양기초교육원이 주관하고 광주대학교 교양교육원, 호남대학교 AI교양대학이 참여했으며, 3개 대학 교수 40여 명이 참여해 대학별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사례발표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배재대학교 심혜령 교수의 ‘균형교양교육을 위한 개방과 연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광주대 GU인성 지역사회연계 학생활동 운영 사례, 기초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그룹 활동” 운영 사례 소개 ▲호남대 비교과 활동 사례 발표(호남대 ‘토론배틀’을 중심으로), 교양연계

비교과 AI경진대회 사례 발표 소개 ▲광주여대 KWU MAUM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교과-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소개 등 각 대학의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 사례 공유가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다.

학술포럼을 주관한 교양기초교육원 강해진 원장은 “이번 교양교육 학술 포럼은 참여 대학의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을 서로 공유하여 핵심역량 기반의 교양교육 혁신 방향을 연구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매년 2회 교양교육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3개 대학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각 대학의 학생들에게 풍성한 교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동서대, LINC 3.0 디자인·메타버스 분야 업무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LINC 3.0 디자인·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동서대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대 LINC 3.0 사업단은 최근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대와 ICC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대학은 LINC 3.0 사업 디자인·메타버스 분야의 ICC 공유 및 협업 성과 창출과 창업, 취업,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공동 추진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학공동 R&D, 기술이전, 맞춤형 All-SET 지원 등의 기술개발 사업과 공동 추진과 권역별 디자인·메타버스 분야 ICC 간의 융합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을 약속했다.

노선식 LINC 3.0 사업단장은 “지역 간 디자인·



문화콘텐츠 특성과 역량 공유를 통해 상생발전과 전문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양 대학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산학협력 구축 업무협약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와 서울 영등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두 기관은 앞으로 동신대 보건행정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연계, 강의 등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전공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연수 ▲현장연수 및 취·창업 기회 제공 ▲비대면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시설, 장비와 공간 사용 협조 등을 함께 추진한다.

또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병원행정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동신대 이호식 보건행정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건행정학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향상과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보건의료행

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MOU



정, 병원경영혁신 및 의료정책 연구와 개발, 17개 시·도회와 사무처, 교육원, 산학협력원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공인 병원행정사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철도 운전·관제 전문 인력 동시에 양성한다”

호남 유일 철도특성화 대학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 개소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가 최근 송원대 국토교통부 지정 철도관계교육훈련기관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고재철 이사장,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을 비롯해 광주송정역 전삼수 역장, 한국철도공사 호남차량정비단 허연 단장 등이 참석했다.

호남에서 유일한 철도특성화 대학인 송원대는 국토교통부 지정 철도운전교육기관에 이어 이번엔 철도관계교육기관을 개원함으로써 사립대학 가운데 전국 최초로 운전과 관제전문 인력을 동시에 양성하는 대학이 됐다.

철도 관제는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우고 정차와 재출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열차를 안정적으로 달리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 항공기의 관제사와 비슷하다.

고재철 송원대 이사장은 “지역의 명문사학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도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노력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이제 전국 사립대 최초



송원대학교가 최근 국토교통부 지정 철도관계교육훈련기관 개소식을 열었다. 학교법인 송원대 고재철 이사장, 최수태 총장을 비롯해 광주송정역 전삼수 역장, 한국철도공사 호남차량정비단 허연 단장 등이 개원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송원대 제공)

철도 운전과 관제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학으로, 그래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철도특성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원대는 1996년 송원대학교 최초로 철도경영학과를 설립해 26년 동안 철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6년 철도운전훈련기관인 철도

아카데미를 열었다. 역무원, 기관사, 관제사 등으로 20명이 공기업 등에 취업했다. 송원대학교 철도대학은 철도운전경영학과, 철도운전시스템학과,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철도차량·전기시스템학과 등 4개과로 매년 135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